

		시 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012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결재일자	2015.7.3.	이빛나	김춘수	이승일	07/03 권병용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재난관리과장		남성현
방침번호			행정팀장		강길구
			대응총괄팀장		김철수

함께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 100일간, 수호천사에 의한 CPR 교육 실시 결과에 의한 -

『상설 CPR 체험장』 내실화 계획



2015. 7.

강서소방서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회 적 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선 거 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 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타 기 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 른 우 리 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00일간, 수호천사에 의한 CPR 교육 실시 결과에 의한 -

『상설 CPR 체험장』 내실화 계획

서울소방 최초의 심폐소생술 전용 교육장으로 수호천사에 의한 CPR교육 100일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필요한 시민이 요구하는** 안전디딤돌 『상설 CPR 체험장』 으로 거듭나고자 함.

I CPR 체험장 현황

기본방침

- 시민 누구나 찾아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
- 소·소·심을 체험하는 소방안전교육의 場으로 운영(1~3층 연계)

상설 CPR 체험장 현황

- 장 소 : 강서소방서 1층 청사[64.5㎡]
- CPR 체험 장비 : 교육장비(LED TV), 실습용 장비(마네킹, AED 등)



CPR 체험장 운영 : 연중 24시간 체험 가능

- 접수방법 : 인편, 전화, 문서접수, 강서소방서 홈페이지 공지
- 프로그램 : 1시간 30분(이론 30분, 실습 30분, 개별 연습 30분)

운영개시 : 2014.8.21.

II 관 련 근 거

- 소방행정과-5365('14.5.2)호 “상설 CPR 체험장 설치 계획”
- 소방행정과-1054('15.1.29.)호 “2015년도 상설 CPR 체험장 운영 계획”
- 소방행정과-3148('15.3.23.)호 “수호천사와 함께하는 CPR 체험장 운영 계획”

Ⅲ

수호천사에 의한 CPR체험장 운영

□ 「심폐소생술 수호천사」 선정

*재난관리과-2020(2015.3.26.)호 “상설 CPR체험실 의용소방대 지원 계획 알림”

- 대 상 : 의용소방대원
- 인 원 : 10명<응급처치 일반, 전문과정 수료자 중 강의기법 통과자>
- 평 가 : 2015.3.26.(목) 응시 10명 / 최종 10명 선정
- 선정 결과
 - 응시자 전원(10명)을 수호천사 인력POOL로 구성하여 운영
 - 강사 자격 소지자(2명)^{*박순복, 서정옥} 즉시 시민 CPR 교육 실시
 - *2명(자격 보유) : 심폐소생술 강사(대한적십자사, 2012년)
 - 자격증 미보유자 8명^{**}은 최단 기간 내 심폐소생술 강사자격 취득
 - *8명(자격 없음) : 응급처치교육 수료(이옥례, 안영희, 임미경, 김순옥, 이미영)
응급처치교육 미수료(김선희, 권혁란, 장영옥)
(강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은 재난관리과와 협의 후 진행)
 - 개인별 강의 실시 후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대원은 교체 가능

□ 「수호천사」 에 의한 CPR체험장 운영

- 일 시 : 2015.3.23.(월) 부터
- 인 원 : 10명 [4.8.(수) 이후 7명 근무]
 - *수호천사 인원 변경
 - 2015. 3. 31. : 2명(임미경, 안영희) → (사유) 강의에 어려움으로 포기
 - 2015. 4. 7. : 1명(김순옥) → (사유) 다리 골절로 인한 포기
- 교육횟수 : 1일 2회 → 1일 3회(2015. 5. 11.)
 - 1일 2회 : ①10:00~11:30 ②15:00~16:30
 - 1일 3회 : ①10:00~11:30 ②14:00~15:30 ③16:00~17:30
- *이수빈 학생 사례 언론 보도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 희망자 증가로 횟수 조정
- **소방행정과-5354(2015.5.8.)호 “상설CPR체험장 정기교육 횟수 조정 계획 보고”

- 운영인원 : 1일 2명(오전, 오후)
 - 근무시간 : 8시간(10시~18시)
 - 개인별 근무시간 (2015. 5. 11. 근무시간 변경)
 - (조정 전) 오전 4시간(10시~14시), 오후 4시간(14시~18시)
 - (조정 후) 오전 4시간(9:30~13:30), 오후 4시간(13:30~17:30)

*조정 사유 : 교육횟수 증가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조정

○ 주요 임무

- 의용소방대 복장 착용 후 안내 데스크에서 시민 응대
- CPR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시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민원 방문 시민에 대한 청사 안내(노약자 등 2층 민원실까지 안내)
-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방문한 유치원생 안전 보조

< 주요 활동 사항 >



IV 운영 결과

□ 분석 기간 : 2015.3.24. ~ 6.30. (100일)

□ 교육 인원 : 1,783명(1일 평균 35명)

구 분	계	2015.3월	2015.4월	2015.5월	2015.6월
인 원	1,783명	191	562	795	235
기 간	53일	7	22	19	5
1일 평균	35명	27	26	42	47

*2015.6.8.(월) 메르스 확산에 따른 상설CPR체험장 운영 잠정 중단

**체험장 운영 잠정 중지 [소방행정과-6492(2015.6.3.)호 “메르스 확산에 따른 상설CPR체험장 정기교육 취소 계획”]

① CPR 교육 참석자 현황

○ 연령별

구 분	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계	1,783	56	544	436	283	336	109	19
비 율	100%	3.1%	30.5%	24.4%	15.9%	18.9%	6.2%	1.0%

○ 성 별

계	남자	여자
1,783명	722명(40.1%)	1,061명(59.9%)

○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참석자 현황

계	2015.4월	2015.5월	2015.6월
384명	57명	259명	68명

*1365 자원봉사 포털 개설 : 2015. 4. 6.(월)부터 모집

**메르스 영향으로 2015. 6. 8.(월)부터 정기교육 개설하지 않음

②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교육자 모집

- 개설 일시 : 2015. 4. 6.(월)부터
- 모집 방법 : 1365 포털을 이용 정기 교육(1일 2회) 모집(회당 10명)
*2015.5.11.(월) 부터 1일 3회 모집
- 모집 인원 : 384명
- 교육 모집 추이
 - 자원봉사시간 2시간을 부여하여 초중고생 등 관심 증가
 - 학교 수업시간 이후 교육개설을 희망(오후 4시 이후 등) 건의 증가
 - 그룹별 교육 희망 단체 증가(한국가스공사, LH, 호서대학교 등)
 - 개인별, 그룹별 교육 희망자가 많아 오후 시간대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참여도 높아짐

< 1365 자원봉사로컬 >



→ 1365 자원봉사 포털 등록 의미

- 자원봉사 2시간 부여 등으로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는 효과 발생
- 학부모의 관심은 학교 방과 후 추가 개설(1회)하는 발판으로 나타남
- 오후 2차(오후 4시) 교육은 시민의 관심이 많아 자원봉사 포털 일감 등록시 하루 이내에 마감되는 등 호응도가 높음
- 상설 CPR 체험장으로 방문객이 계속 이어지는 촉매제의 역할
- 이수빈학생의 사례가 시사하듯 주변의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 주요 교육 사례

① 이수빈 학생 교육

- 일시 : 2015. 4. 9.(목) 15:00
- 참석 : 이수빈 학생(수명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와 함께 참석)
- 교육 후 : 교육 실시 3시간 후 50대 시민 심폐소생술 실시



< 교육 장면 ① >



< 교육 장면 ② >

②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교육

- 기간 : 2015. 4월 ~ 5월(4회)
- 참석 : 60명



③ 호서직업전문학교 학생 교육

- 기간 : 2015.6.2.~6.3.(2회)
- 참석 : 71명



④ 강서경찰서 경찰관 교육

- 기간 : 2015.5.26.~5.29.(3회)
- 참석 : 22명

⑤ 중국인 관광객 방문 교육

- 일시 : 2015. 5. 8.(금)
- 참석 : 34명
- 방법 : 한국 관광후 중국으로 출국 직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주요 언론 보도

[사례] CPR 교육 수료 후 심폐소생술 실시 사례 - 이수빈 학생

강서소방서 「상설 CPR 체험장」, 제1회 초등학생에 의한 - 의식 잃고 쓰러진 행인 CPR 실시 사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상설 CPR 체험장」 교육 수료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행인을 신속한 심폐소생술 실시로 의식 회복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린 미담사례

□ 출동 개요

- 일 시 : 2015. 4. 9. (목) 19:04
- 장 소 : 강서구 내방산동 749-3 마곡수영장내 2단지 입구
- 구 급 대 :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대
- 출동 시 상황
 - ✓ 행인(경오, 51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최근 디스크 수술 경력 있음)
 - ✓ 이수빈 학생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 심폐소생술 실시 1분 후 의식 회복)

□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 (19:04) 길을 걷던 행인 쓰러짐 +119신고는 옆에 있던 다른 시민이 신고함
- (19:05) 길 건너편에 있던 이수빈 학생이 의식 없는 것을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 (19:06) 행인 의식 돌아옴
- (19:13) 구급대(현장대응단 구급차)에 의해 이대목동병원 이송

→ 4,10(금) 큰 상태 : 이대목동병원 일반방실에서 치료 중

□ 상설 CPR 체험장 교육

- 일시/장소 : 2015. 4. 9. (목) 15:00 / 상설 CPR 체험장
- 교육 수료 : 이수빈(여, 11세) - 수명초등학교 4학년 4반
- 교육 계획 :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신문 보도와 인터넷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CPR을 배우기 위하여 강서소방서 방문



《강서소방서 「상설 CPR 체험장」 운영》

- ◇ 장 소 : 강서소방서 1층 청사(64.5㎡) → 2014.8.21.부터 운영
- ◇ 장 비 : 심술 장비(마네킹 14, AED 5), 표준 장비(표 프로젝트 등)
- ◇ 교육 수료 인원 : 2,266명(2015.4.10. 현재)
- 체험 사례 : 기술 스님, 장서구출장, 상동리외소, 금광마을, 3살 아기 등



이수빈 학생 교육 장면
< 어머니 핸드폰 촬영 >

[언론보도] 이수빈 학생 사례 - 2015.4.13.(월) 한국일보

초등생이 심폐소생술로 50대 아저씨 살렸다

지난 9일 오후 7시4분 서울 강서소방서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니 구급차를 빨리 보내 달라는 신고였다. 곧 소방서 현장대응단이 출동했고, 신고 4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강서소방서 박지은 대원은 12일 “사고 현장에 가 보니 희미하게 기억을 되찾아 갈바닥에 앉아 있는 남성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고 말했다. 주변에선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아저씨를 살렸다”고 웅성거렸다.



서울 수명초교 4학년 이수빈양

4시간 전 강서소방서에서 배운 마네킹 실습 떠올리며 흥부암박길에서 3분 만에 의식 되찾게 해

“겁도 났지만 돕고 싶단 마음에... 친구들과 이웃도 함께 배웠으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을 살린 학생은 서울 수명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10·사진)양. 이양은 이날 오후 7시쯤 엄마와 집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서던 길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막 지날 무렵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발을 구르고 있었고 누군가가 “119신고를 해 달라”고 소리쳤다. 어른들도 여쩍 졸 물러 하던 그때 이양은 불과 4시간 전 배운 심폐소생술 매뉴얼을 떠올렸다.

마침 이양은 이날 오후 강서소방서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상설 CPR(심폐소생술) 체험장’을 방문해 심폐소생술을 배운 터였다. 안전교육기관이 아니라 상설로 심폐소생술만 교육하는 곳은 강서소방서가 유일하다. 지난 3월 서울시가 공모한 어린이기자단에 뽑힌 이양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 소방서를 찾았다. 이날 이양은 담당 소방관에게 1시간 가량 매뉴얼 교육을 받고 마네킹을 상대로 실습까지 마쳤다.

응급상황 당시 이양은 재빨리 남성을 흔들려 반응을 확인했지만 기는나란 숨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의식은 좀체 돌아오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양은 주변 사람에게 남성의 얼굴과 목을 끈개 폐 기도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한 뒤 흥부암박을 실시했다. 그렇게 이 당찬 소녀가 1, 2분 동안 30여 회의 흥부암박을 계속하자 남성은 ‘후’하는 큰 숨소리와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 단 3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보통 심장이 멎어 4분 이

상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중단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양의 치분한 응급조치가 남성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다.

이양은 구급대에 인계된 남성이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엄마 품에 안겨 평평 웅었다. 이양은 “구급차가 떠나는 걸 보니 아팠었던 당시 상황이 떠올라 울음이 터졌다”며 “겁도 났지만 배운 대로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고혈압 증세가 있던 이 남성은 곧장 응급실로 이송돼 하루 정도 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퇴원했다. 남성의 가족은 “어린 학생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도와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나중에 커서 구호단체나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양은 “심폐소생술은 내 친구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인 거 같다”며 “친구들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민기자 hbkim@hk.co.kr

< 2015.4.13.(월)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 >

[언론보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기획 취재

朝鮮日報

2015년 04월 14일 화요일 A34면 오피니언

萬物相

열 살 소녀의 심폐소생술

지난 9일 저녁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아파트 단지 입구. 초등학교 4학년 열 살 이수빈양이 엄마와 장을 보러 나왔다가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살려 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한 아저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순한 살 행인이었다. 곁에는 그의 딸이 울먹이며 있었다. 주위에 열댓 명이 모여 있었지만 다들 “어떻게 하지” 하며 발만 굴렀다. 이때 수빈이가 나섰다. 엄마가 쓰러진 이의 기도(氣道)를 열자 수빈이는 능숙하게 가슴을 1분에 30차례씩 누르기를 몇 번 거듭했다. 신발과 양말을 벗겨 혈액 순환이 잘되게 했다. ▶행인은 잠시 뒤 ‘푸’ 하는 숨소리를 내며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으로 옮겨져 이튿날 무사히 퇴원했다. 수빈이는 소방서에서 배운 대로 했다고 말했다. 행인이 쓰러진 현장을 만나기 네 시간 앞서 강서소방서에서 엄마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한 시간 동안 구급대원 지도를 받으며 마네킹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훈련을 했다. 강서소방서는 작년 8월부터 심폐소생 체형 훈련장을 차리고 날마다 오전·오후 두 차례 시민들에게 무료 교육을 해 왔다. ▶그제 밤 11시 50분쯤엔 전남 나주 어느 요양병원 4층 직원 휴게실에서 전기매트가 과열돼 불



이났다. 심야 병원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217명이 입원해 있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물론 다친 사람도 한 명 없었다. 불이 나자마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화재경보기에선 비상경보음이 울렸다. ▶병원 야간 근무자 스물두 명은 환자들을 재빨리 아래층으로 대피시켰다.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소화기로 불을 껐다. 모두 평소 훈련하던 대로 움직였다. 불은 간이침대만 조금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다. 1년 전쯤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스물한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다친 화재가 생각났다. 이 병원엔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소화기 열한 개 중 여덟 개는 잠긴 캐비닛에 들어 있었다. 야간 근무자도 몇 안 돼 간호조무사 혼자 불을 끄다 죽었다. ▶몇몇 기업과 구청이 심폐소생술을 가르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많은 사람이 쓰는 시설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훈련을 시키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건성이기 일쑤다. 이를 뒤늦게 세월호 참사 1주기다. 그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꼴로만 알았다. 수빈이와 나주 요양병원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안전 의식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김남기 논설위원

< 2015.4.14.(화) 조선일보 오피니언 >

朝鮮日報

2015년 04월 25일 토요일 B06면 특별기획

심장마비 환자 살리려면... 119 올 때까지 ‘흉부 압박’만이라도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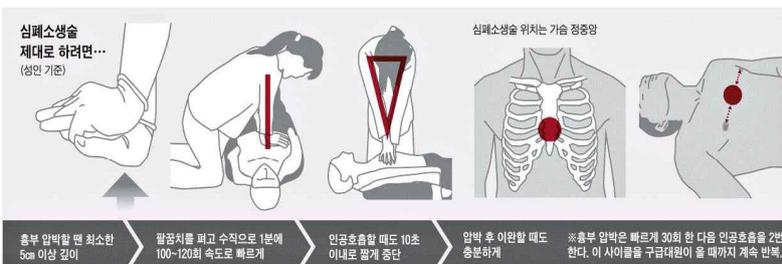
초동생도 사람 살리는 심폐소생술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울수명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10)양이 길에 쓰러진 김모(51)씨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선 한 해 3만명 가까운 사람이 심장정지를 겪는다. 이 중 살아서 병원 문을 나가는 사람은 5%도 되지 않는다.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119구급대의 도착이 도착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초기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비율이 30~6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8.7%(201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의 행동을 더욱 빛나는 이유다.

의료계에서는 이양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위원 이승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2009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새벽에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적이 있다”며 “이런데 그때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어린 만 10세 여학생이 주인공이어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끈다”고 말했다.

“초동 4학년이면 심폐소생술 할 수 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서소방서 1층 상설 CPR(심폐소생술) 체험장. 이수빈양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곳이다. 이양은 그날 오후 3시쯤 이곳에서 자원봉사자 서정옥 씨에게 약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을 배웠고 4시간 후 김씨의 생명을 구했다. 서씨는 “수빈이는 배우려는 의욕이 강했고, 흉부 압박하는 자세가 좋아 초동학생치고



심폐소생술 제대로 하려면... (성인 기준)

흉부 압박할 때 최소한 5cm 이상 깊이를

팔꿈치를 펴고 수직으로 1분에 100~120회 속도로 빠르게

인공호흡할 때도 10초 이내로 짧게 중단

흉부 압박을 멈추는 때가 아니라, 이 사이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이 사이를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흉부 압박은 심장을 눌렀다 뺐다 하는 과정을 통해 심장이 펴져서 피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공호흡은 폐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움직임이다. 흉부 압박 방법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압박을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상당한 체력과 노력이 필요할

요령은 비교적 간단
환자 가슴의 중앙부위를 깊고 빠르게 누르면 돼 중단없이 하는 것이 핵심

체력·노하우 필요
팔 펴고 체중 실어 90도로 1분당 100회 이상 눌러야 10초 이상 멈추면 안돼

生死 가르는 시간, 4분
심장 멈춘 후 4분 이내에 소생술엔 생존율 50% 이상 첫 발견자 대응 매우 중요

것 같았다. 강서소방서 체험장에서 구조대원이 가르쳐준 대로 연습용 인형(에니)을 상대로 흉부 압박을 해보니 1분 정도 지나자 이마에서 약간 땀이 배어 나왔다. 이성의 소방교는 “땀을 끈게 펴고 체중을 실어 90도로 눌러야 ‘오랫동안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품질 흉부 압박은 전문 구조대원도 쉽지 않은 일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48%나 되고 평균 속도는 분당 64회에 불과하며 평균 깊이는 3.4cm 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이 길고 속도가 느리고 깊이가 얕을수록 환자 생존율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가격의 4분
지난해 12월 서울 방화동에서 50대 남성이 새벽에 집에서 불을 마시러 가다 쓰러졌다. 심장 질환이 있었지만 이남성은 곧 심장이 맞았다. 정확히 13분 후 도착한 119 구급대는 깜짝 놀랐다. 남성의 아내가 계속 심장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응급처치를 받은 남성은 병원에 도착할 때쯤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심장 정지 환자를 다루는 응급 의료계에선 ‘가격의 4분’이란 말이 있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춘수 강서소방서 홍보교육팀장은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97%에 이르고, 2분 이내는 90%, 4분 이내는 50% 이상이다. 10분이 지나면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국내 119구급대 현황에 도착하는 시간이 5~10분이란 점을 감안하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면 쓰러진 뒤 30분이 지난 환자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작년 말 경기도 수원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51)씨는 15차례 전기 쇼크 치료와 구급대원 6명의 44분에 걸친 심폐소생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환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평소 심폐

소생술을 배워둬야 한다는 말이 나오든 아무도 이런 시간적 급박성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를 제일 처음 본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환자가 살아남 확률이 높아지는데, 가족 등이 최초 발견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에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정지 증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64.7%에 달했다. 도로 10.2%, 공공장소 3.4%, 산업·상업 시설이 3.1%였다. 의료시설은 1.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심장 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우선 119구급대에 전화하라고 하고 말했다. 한 119구급대원은 “가족이 눈앞에서 쓰러지면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나 112로 전화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들딸이나 부모한테 먼저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수록 구급대 도착이 늦어지고 환자 생명이 더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잘 모르면 흉부 압박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지현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간호사는 “환자가 모르는 사람일 때 인공호흡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절차나 방법을 모르면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그냥 흉부 압박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흐름도 흉부 압박을 더욱 중요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장이 정지하고 호흡이 없어져도 폐 속에는 산소 함유 공기가 5~6L 정도 있고 이때 폐를 처음 5분 정도는 혈액 속 산소 농도가 꽤 높게 유지된다”며 “숨겨져 있지 못한 사람이 인공호흡하는 가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것보다 계속 압박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현 기자

< 2015.4.25.(토) 조선일보 특별기획-섹션 >

[언론보도] 이수빈 학생 사례 보도



- 방송국 : KBS
- 소개 : 9시뉴스 등
- 횟수 : 8회



- 방송국 : MBC
- 소개 : 뉴스데스크 등
- 횟수 : 6회



- 방송국 : SBS
- 소개 : 8시뉴스 등
- 횟수 : 4회

한국일보

2015년 04월 14일 화요일
A15면 사회



강서소방서, 50대 남성 살린 초등생 표창

권병용 서울 강서소방서장은 13일 심폐소생술을 통해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을 살려 화제(본보 13일자 11면)가 된 서울 수명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10)양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양은 지난 9일 오후 강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같은 날 강서소방서 상설 CPR체험관에서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구했다. 강서소방서 제공



< YTN 뉴스 >



< 연합뉴스TV >



< TV조선 >



< JTBC >



< YTN scienc >



< 티브로드서울 >

[정부대응] 이수빈 학생 심폐소생술 실시 이후 정부 대응

<p>국민안전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민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익히기 프로그램 확대 계획 발표(2015.4.21.) ○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수여(2015.4.27.) 	
<p>보건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2015.4.15.) ○ '심폐소생술' 체조 동영상 제작 보급(2015.5.12.)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2015.5.1.) 	
<p>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우여 삼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심폐소생술 교육(2015.4.20.) 	
<p>서울특별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지시(2015.4.16.) - 소방서 '상설 심폐소생술 실습장' 설치 운영 ○ 서울시교육청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2015.4.21.일부부터 운영) ○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체험장 28곳 설치(2015.4.13. 발표) 	

[체험장] 상설CPR체험장 교육 이모저모



<강서소방서, '심폐소생술' 1만명 교육 실시>
티브로드서울, 2015.4.13.



<노현송 강서구청장 CPR 체험, 기관장 협의회>
2015.4.22.



<중국인 관광객 심폐소생술 체험>
2015.5.8



<어린이기자단 CPR 체험>
2015.5.12

① 정규 교육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 현 운영 형태

- 심폐소생술 교육과 청사내 방문 시민에 대한 안내 등 업무 보조 병행
- 많은 시민이 희망하는 시간대 교육 개설보다 상설화를 중점으로 수호천사 운영

*오전보다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시민, 학생 등이 교육을 받으러 방문하기 좋음

- 한명의 수호천사가 오후 2회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로도 가중될 우려 높음

*오전, 오후 각 1명 / 오후 2회 정규 프로그램 운영 및 많은 시민 방문하고 있음

○ 검토 의견

- 시민이 요구하는 오후 시간대 교육 강화로 시민이 목소리 수용
- 개별적으로 시민 방문시 교육담당이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오후 시간대에 수호천사 집중배치로 교육 효과 극대화

○ 향후 개선방안

- 1365자원봉사 포털에 오후 2회 정기교육 등록(2시, 4시)하고 교육인원을 15명으로 증가(현재 10명 → 15명으로)
- 오전 교육은 희망하는 시민, 단체 등 모집 시 운영
- 오전 등 수호천사 근무 시간 이외에는 교육 담당이 전담교육 실시

② 수호천사 근무에 대한 검토

○ 현 운영 형태

- 하루 2명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개념으로 근무
-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시민이 오전은 몇 명 되지 않으나 오후에는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석

○ 검토의견

- 시민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집중 투입
- 오후 시간대는 1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하기 부담스러움으로 수호천사 인원에 대한 검토(1명에서 2명으로 등)

○ 향후 개선방안

- 장기적인 오전 근무는 없애고 오후에 2명이 근무
*2명 근무시 1명은 주 강의, 1명은 보조 강의자로 개인별 자세 교정 등 실시
- 오전시간대 교육 개설시 오전 1명 근무
*오전근무 시간은 2시간 : 09:30~11:30

③ 수호천사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보장

○ 현 운영 형태

-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 미보유(5명)
*대한심폐소생술 협회 자격 취득 과정 이수 중(9월 까지 취득 기간 유예)
- 수호천사로 우리서만의 특화된 소방업무를 보조함에도 일부 직원과 타 의소대원의 이해 부족으로 향후 불만요인 내제

○ 검토의견

- 개인별 심폐소생술 강사 교육 강화
*자격 취득 전까지 교육담당에 의한 보수 교육 실시(월 1회 4시간 / 교관 : 이빛나)
- 일치된 수호천사 복장 지급(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2020(2015.3.26.)호 “상설 CPR체험실 의용소방대 지원 계획 알림”에 복장에 대한사항 명시되어 있음.

○ 향후 개선방안

- 강사 자격 취득 독려(수강료 등 지급 방안 검토)
- 수호천사 단체복 제작 보급(현재 의소대 조끼 착용 후 근무)
- 의용소방대원으로 수호천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부여 방안 강구(표창, 자녀 장학금 등)
- 상설체험장 근무 시 그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

① 정규 교육 운영

- 횟수 : 3회(10시, 14시, 16시)
- 인원 : 회당 15명 내외
- 강사 : 수호천사 2명
- 1365 자원봉사센터 등록
 - 방법 :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활용
 - 횟수 : 2회(14시, 16시)
 - 봉사시간 인정 : 2시간

② 수호천사 근무 방법

- 시간 : 오전(2시간) 09:30~11:30 / 오후(4시간) 13:30~17:30
- 일시 : 오후 (오전은 사전 교육일정 확정 시 근무)
- 인원 : 2명 (10명 미만은 1명, 10명 이상은 2명 근무)
- 인력 POOL : 7명



③ 수호천사 인력 POOL 자격 강화

- 대상 : 7명
- 자격 :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 취득 후 강의 실시
(현재 자격 미보유자 5명은 2015.9월 한 자격 취득 유보)
*유보 기간내 자격 미 취득시 수호천사 인력 POOL에서 제외
- 보수 교육
 - 횟수 : 매월 1회 4시간 이상
 - 강사 : 홍보교육팀장(교육담당)
 - 방법 : 우리서가 추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 중점

④ ‘토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신설

- 운영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 인원 : 30명(10가족 내외)
- 방법 : 심폐소생술(1층)과 소방안전교육(3층)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유도
-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가족단위 참가자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가족 사진, 기념품 등)
 - 3층 안전체험장을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공개 개방 (옥상에 소화기 시뮬레이션 체험으로 흥미 유도)



+



⑤ 상설 CPR 체험장 물품 보강

- 대상
 - 체험장 내 심폐소생술 애니, 매트 등 기본 장비
 -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을 위한 시설(현재, 겨울 온풍기 / 여름 별도 없음)
- 체험장 물품 보완
 - 체험장 소모품(페일드 쉘드, 세척제 등) 수시 구매

*2015년도 소모품 구입 비용 : 1,142,100원 지출

구 입 일	구입품목	소요예산
2015. 4.15.	AED 및 심폐소생술 마네킨 수리	594,000원
2015. 4.28.	심폐소생술 교육진행 소모품	89,900원
2015. 6. 5.	심폐소생술 교육진행 소모품(물티슈 등)	99,800원
2015. 6. 9.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용 매트	275,000원
2015. 6.30.	커피포트 등 2종	83,400원

-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예산 배정 요청(재배정 : 본부 소방행정과)

*냉난방기 구입비용 : 2,315천 원 / 2015.7월 초 설치 예정

- (재난관리과) 수호천사 수당 지급 및 복장 마련
 - 대상 : 수호천사 참여 의용소방대원
 - 수당 : 의용소방대 운영 기준에 따라 개인별 수당 지급
 - 복장 : 수호천사 복장 마련(추후 예산 확보시)

- (재난관리과) 수호천사 인력 POOL 운영
 - 인원 : 10명 내외 (현재 7명 운영) *인원에 구애없이 자격요건자 중 운영
 - 내용 :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과정 수료자('15.10월 이후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인력 POOL 포함 시민안전교육
 - 방법 : 재난관리과 선정 계획에 따름

- (소방행정과) 상설 CPR 체험장 환경 개선
 - 대상 : 상설CPR체험장
 - 방법 : 애니, 매트 및 교육 중 음료 등 체험장 전체를 범위로 개선
 - 기간 : 수요 발생시 수시

- (소방행정과) 심폐소생술 언론 보도 전개
 - 대상 : 지역언론사 등
 - 방법 : 우리서 상설CPR체험장 소개
최초 발견 시민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기획 보도
 - 시기 : 연중 추진

- (소방행정과) 상설 CPR 체험장 운영 재개
 - 일시 : 2015. 7. 6.(월) *예정
 -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 2015.7.6.(월) 오후 2시 교육 부터. 끝.